

## 4중고 광주 택시기사들은 '울고 싶다'

천정부지 치솟는 연료값  
완전월급제는 머니먼 길  
적정대수 초과 공차 행렬  
하루 12시간 살인적 노동

광주지역 택시운전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 20일 광주지역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업체가 사납금을 요구하며 유급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역별 택시 운행률은 광주가 55.6%로, 96.9%인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은 15.7%, 인천 1.4%, 전국 평균은 19.5%에 그쳤다. 대구·울산·대전은 각각 운행률 전전 중단했다.

◇천정부지 연료비=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의 LPG 가격은 1ℓ 당 1107.40원으로 지난 2010년 11월 891.27원에 비해 216.13원(24%)이 상승했다. 지난 2002년 1ℓ 당 457원에 비하면 무려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반면 택시요금도 지난 2008년 20% 가량 인상된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운전사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른 충전소에서 충전할 경우 국토부와 국제청이 1ℓ 당 221.36원씩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시내 LPG충전소는 25곳이지만 76개 법인택시 회사는 이 가운데 10곳과만 계약을 맺고 있다.

◇머니먼 완전월급제=법인택시 회사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인 회사는 단 1곳뿐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사는 매일 사납금(2인 1차량 8만원선, 1인 1차량 1만~12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연료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등은 모두 회사에서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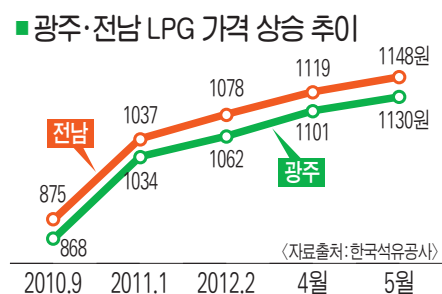
택시업계 관계자는 "뜯어박힌 연료비 때문에 회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운전사들이 사납금과 연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나긴 공차 행렬=광주지역 택시는 법



황금빛 황실이 바다

20일 목포시 해안동 수협위판장에 어민들이 잡아온 '황실이'(황석이)가 황금빛 바다를 이루고 있다. 이날 위판된 황실이는 9522kg, 18kg기준 한 상자당 10만~12만원에 거래됐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



##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재산권부터 보장을"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공청회가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섰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일 광주 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최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답양 및 화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한때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공단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이 갖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장원 환경부 자연자원과 사무관은 "무등산이 1988년 월출산·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제발표 후 패널들의 토론이 어지러지면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립공원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한 50여 명의 화순·답양 주민들은 "재산권을 먼저 보장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화순에서 온 주민 이모(43·화순읍 수만리) 씨는 "집은 물론 논과 밭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수십 년 간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법규가 더 강화될 것 아니냐"며 "생존권이 무너지는 마당에 국립공원 지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주민 좌담회 ▲관할 시·도지사(군수)의 의견 청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등산을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알림**

대한민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FIVB VOLLEYBALL**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  
내일 광주 염주체육관서 개막

한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6월 22·23·24일

세계 배구강호들이 격돌하는 2012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가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한국과 함께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이 포진한 C조는 각각 모두 강력한 서브와 고타점 스파이크, 철벽 블로킹으로 무장한 강팀들로 남자배구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매년 월드리그 남자배구대회를 유치해온 광주일보와 광주시배구협회는 특히 올해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내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해오던 이 대회를 단독유치 했으며 이에 따라 4개국 풀리그 12경기가 모두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회기간 전 경기는 MBC Sports 채널로 생중계 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6.22(금) 14:00 대한민국 vs 프랑스  
16:30 이탈리아 vs 미국  
6.23(토) 14:00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16:30 프랑스 vs 미국  
6.24(일) 14:00 대한민국 vs 미국  
16:30 프랑스 vs 이탈리아

\*입장권: 일반 5000원  
학생 2000원  
염주체육관 대표소 현장발매  
\*사전구입문의: 광주시배구협회 062-372-6218  
광주일보사 062-220-0542

■ 주최: FIVB(국제배구연맹)  
■ 주관: 대한배구협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일보사  
■ 주관방송사: MBC Sports  
■ 후원: 광주광역시, Hyundai Capital,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액 선적용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문화마루 공식카페

광주·전남지역 아시아인의 문화 한마당

**아시아, 10cm 더**

아시아인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무 료 공연안내 6. 23(토) / 9. 22(토) / 10. 27(토) 오후 5시  
아시아문화마루 (문화전당역 광장) 062-236-0481

10cm: 사랑하는 사람과 유지하는 간격  
아시아인들에 대한 마음의 간격, 물리적 공간의 간격을 10cm 씩 더 끌어당겨 아시아인들과 더욱 가까워 지자는 의미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Gwangju Immigration Office